

# 취재요청서

## 노나메기

(재)백기완노나메기재단

수신 문화부, 사회부, 사진부  
제목 17년 만에 부활하는 노동절 전야제 민중문화예술(11쪽)  
발송일 2026년 4월 28일(화) 18:00  
요청사항 없음  
문의 양기환 대변인 010-5307-3595  
채원희 사무처장 010-3665-2779

## 17년 만에 부활하는 노동절 전야제 민중문화예술

제1회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광장의 노래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1.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고 백기완 선생의 시(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시 ‘뫼비나리’)가 세계노동절 전야인 4월 30일 청계광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1989년 시작했다가 2009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민중문화예술과 노동절 전야제가 17년 만에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으로 부활합니다. 1989년 최초의 4.30 노동절 전야제에 함께 했던 민중문화예술 1세대와 2026년 청년 민중가수 선발전(오디션)에서 뽑힌 ‘윤석열 탄핵 세대’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개인과 단체 500명이 후원하고 문화예술 일꾼 200명이 참여한 민중문화예술 한마당이 노동절 전야를 수놓습니다.

2.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추진위원회는 노동절 전야인 4월 30일 청계광장에서 제1회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광장의 노래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백기완 선생의 기일(2월15일)이 아니라 노동절 전야를 행사일로 정한 이유는 5월 1일 노동절이 단순히 이름만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을 비롯한 민중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부정당한 채 차별과 배제 속에 여전히 생존의 위기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함께 잘 사는 노나메기 벗어나래(세상)”를 얘기하던 백 선생의 외침을 되살려 노동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3.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은 ①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민중문화예술을 복원하고 노동자 시민이 한바탕 놀아나는 마당이며 ②억압과 착취,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노동절 전야제로 매년 4월 30일에 개최하며 ③기후 위기와 전쟁, 착취와 차별이 없는 사회, 자본주의 너머 노나메기 세상을 꿈꾸는 한바탕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4.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민중문화 예술의 부활입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영향으로 노동현장과 학교에는 민중문화패가 번성했고, 노동자-민중문화예술이 꽃피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약화되면서 민중문화도 침체되었습니다. 이번 백기완 한바탕은 풍물패만 81명이 참가하고, 문화예술 일꾼 200명이 참여하는 대형 마당입니다. 또 1989년 최초의 4.30 노동절 전야제에 함께 했던 민중문화예술 1세대와 2026년 청년 민중가수 선발전(오디션)을 통과한 ‘윤석열 탄핵 세대’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5. 이번 문화제의 또 다른 의미는 ‘노동절 전야제’의 부활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전국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대학이나 광장에서 4:30 노동절 전야제에 참석한 뒤 노동절 당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노동절 행사를 치러왔는데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2009년 건국대에서 주최한 노동절 전야제를 마지막으로 전야제가 치러지지 못해오다가 2026년 백기완 한바탕으로 17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이름을 되찾은 첫 노동절, 63년 만에 노동절 이름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절 전야제를 복원해 비정규직 노동과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입니다.

6. 공연은 세 마당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마당 ‘임을 위한 행진곡’은 청년·학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며 시작합니다. 둘째 마당 ‘예술이 앞장서나니 산 자여 따르라’에서는 산재 유가족과 해고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예술가들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셋째 마당 ‘젊은 춤꾼이여 딱 한발 떼기에 목숨을 걸어라’는 과거 전야제 세대와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꾸립니다. 음악 무대에는 정태춘, 하림, 꽃다지 등이 참여하고, 시 낭송에는 송경동 시인, ‘백기완 평전’ 집필자 정지아 작가가 함께 합니다. 이와 함께 풍물과 춤,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무대를 채워 복합적인 공연 형태로 진행됩니다.

7.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노동절 전야제로 매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백기완이라는 이름 아래 흩어져 있던 민중문화의 흐름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시작으로 향후 청년 세대까지 확장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백기완 선생은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산곶매, 이심이, 버선발, 뿔로살이, 쇠뿔이, 새뚝이, 달동네, 새내기, 비나리 등의 시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현 한국작가회의), 민요연구회, 민중문화운동연합, 민족미술협의회, 민족문화대학설립위원회 같은 단체들 설립도 이끌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래 가사인 <뿔비나리>를 지었습니다.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는 거야!”

“세상이 어려울 때 예술은 늘 등불이고 햇불이야. 길이 막히면 길을 내고 빛이 사라지면 스스로 별이 되고, 걷다가 지치면 기댈 언덕이 되는 것이 예술이라고!”

“마당판(광장)에서는 이야기꾼(출연진)과 볼꾼(청중)이 따로 없고 한바탕 놀아나는 것이 민중의 미학이야”

※ 별첨 :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순서지

# 제1회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2026년  
4월 30일(목)  
저녁 7시

장소  
청계광장

2026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사회 권태효

노래 정태춘  
하림  
연영석  
꽃다지  
민중가수연합  
청년민중가수

연극 국단 고래 + 투쟁하는 민중

소설가 정지아

시낭송 송강동

춤 한국민족춤협회

풍물 백기완 노나메기 정신을  
실현하는 풍물패 15곳

영상 정지영  
우광훈  
하셋별  
홍진원  
양동민

미술 김준기

글씨 정태춘

디자인 일상의실천

\* 새독이 합창단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주최  
제1회 백기완 한바탕 조직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광장의 노래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제1회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2026. 4.

(제1회)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추진위원회

## 참여 제안서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서 길을 낸다!”

빛의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2.3 계엄이 해제되었어도 차별받는 이들의 계엄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자유주의 지배와 질서 속에 모든 가치는 돈과 효율로 평가되고, 노동은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 성 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부정당한 채 차별과 배제 속에 여전히 생존 위기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악한 극우화와 신자유주의의 지배 속에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본주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가운데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백기완 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다섯 해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지만 선생의 모습만은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 너머를 꿈꾸며, 한살때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함께 잘 사는 노나메기 벗나래’를 외치셨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예술은 늘 등불이고 횃불이야. 길이 막히면 길을 내고 빛이 사라지면 스스로 별이 되고, 걷다가 지치면 기댈 언덕이 되는 것이

예술이라고!”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선다고 포효하셨던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정녕 춥고 어두운 이때, “언 땅을 지고 일어서는 나네(새싹)들이 있는 한 봄은 온다” 고 했으니, 한발 떼기를 내딛습니다.

2026년 4월 30일에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을 시작합니다. 해마다 5월 1일, 노동절 전야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장서 투쟁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 온 동지께 요청드립니다.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의 주인으로 함께 나서주십시오.

2026년 4월

## 1 추진 배경

### 노나메기 벗나래(세상)를 향한 한발떼기

- 자본주의 체제 그 너머를 꿈꾸며  
일평생 민중의 삶을 위해 앞장서 온 백기완 선생 5주기를 맞아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함께 잘사는 노나메기 벗나래' 를 향해  
다시 일어서기를 시작함

###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서 길을 낸다!

- 겨우내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가냘픈 새싹 같은 예술이야말로 어두운 시대의 양심이자 희망
- 이 깃발 아래 무지렁이들이 모여 한판 신명나게 노는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을 열어 노동자,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의 길을 내고자 함

## 2 행사 성격

- 하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민중문화예술을 복원하고  
노동자 시민이 한바탕 놀아나는 마당이며
- 하나. 억압과 착취,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노동절 전야제로 매년 4월 30일에 개최하며
- 하나. 기후 위기와 전쟁, 착취와 차별이 없는 사회  
자본주의 너머 노나메기 세상을 꿈꾸는 한바탕!

### 3 행사 개요

- 행사 명칭 : 제1회 백기완 문화예술 한바탕
- 부 제 : 광장의 노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일 시 : 2026년 4월 30일(목) 18:40~21:30
- 장 소 : 청계광장
- 구 성 : 스크린 전시마당, 공연마당
- 행사 성격 : ① 음악·시·춤·풍물·연극·영상·사진·그림 등 다양한 장르의 복합 공연  
② 노동자·민중·시민이 주인공인 참여형 예술제
- 주최·주관 : 백기완문화예술한바탕조직위원회 / 백기완노나메기재단

### 4 추진 방향

#### 행사 목표

- ① 노동절 전야에 열리는 문화제로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민족문화·민중문화 복원과 계승 발전 모색
- ② 노나메기 세상의 지향을 미래세대와 민주시민이 공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
- ③ 자본과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예술의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을 제고 하는 계기

#### 주 제

- 자본주의 그 너머를 꿈꾸는 노나메기 세상  
「진보정치」, 「노동」, 「기후위기」, 「차별금지법」, 「공공성」, 「제국주의」 등
- 백기완의 뜻을 이어받은 예술적 재해석과 창조  
「뫼비우스」, 「옛이야기 문학」, 「통일이야기」, 「버선발 이야기」 등

시, 영상, 춤, 풍물, 연극, 노래, 그림 등

- 광장의 예술

「노동자와 시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이 주인공인  
예술제

## 공연 마당

| 구 분  | 방 향   |
|--|---|
| 들어가며   | - 사회자_권해효(배우)   |
| 사전마당 (20")   | - <b>한바탕을 알리는 판열음</b><br>: 풍물 전통 양식을 살려 문화제 판을 연다   |
| 1부: 입을 위한 행진곡 (30")                                    | - <b>여는 영상_ 입을 위한 행진곡</b><br>(사진가들 사진으로 구성)<br>- <b>새뚝이합창단_ 청년학생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단위의 '인터내셔널가'대합창</b><br>- <b>주제영상 1_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b><br>(재단_신학철이사장, 문정현신부, 명진스님, 권낙기)<br>(공모전 수상자_입을 위한 행진곡과 나)<br>- <b>백기완의 예술정신_ 정지아 작가(백기완평전 집필자)</b><br>- <b>공연 1_ 가수 하림</b>  |
| 2부: 예술이 앞장서나니 산자여 따르라 (60")                            | - <b>주제영상 2_ 예술이 앞장서나니 산자여 따르라</b><br>(고진수_세종호텔해고자, 팔레스타인 주민, 베트남 이주노동자_비정규직 노동자)<br>- <b>합동공연_ 연영석+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呢'</b><br>(한전산업개발 김용균 어머니, 쿠팡 장덕준 어머니, 동국제강 이동우 부인 등)<br>- <b>창작 시낭송_ 송경동(한국작가회의)</b><br>- <b>춤공연_ 한국민족춤협회 "길 위에서 맞잡은 손"_백기완의 정신으로 대동세상을 꿈꾸다</b><br>- <b>공연 2_ 노래패 꽃다지</b><br>- <b>연극(창작극'노나메기')_ 극단 고래와 투쟁하는 민중들의 퍼포먼스</b><br>(연출/대본_이해성, 출연 변신영, 장인혜, 박윤선, 류이향, 황재희, 조마리+ 투쟁하는민중)<br>- <b>공연 3_ 가수 정태춘(테너와 듀엣)</b> |
| 3부: 젊은 춤꾼이여 딱 한발떼기에 목숨을 걸어라 (자본주의 넘어 노나메기 세상으로!) (50") | - <b>주제영상 3_ 자본주의 넘어 노나메기 세상으로</b><br>(한바탕을 준비한 사람들)<br>- <b>공연 4_ 민중가수연합+ 청년민중가수오디션 콜라보</b><br>- <b>풍물공연_ 풍물패, 소리, 춤을 더한 공연</b><br>: 태평소, 설장구, 비나리, 북춤<br>- <b>대합창_ 입을 위한 행진곡(참가자)</b><br>- <b>대동놀이_ 여현수, 이성호(대동난장과 큰 기놀이)</b>   |

## 전시 마당

| 구분 | 성격          | 내용      |
|----|-------------|---------|
| 전시 | 영상 스크리닝(그림) | 백기완과 미술 |

## 참여 예술가

백기완 한바탕 안내지 참조